사는 게 아니라 해킹하는 중이다

(욥기 38:1~41)

1. 그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3.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4.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5.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6.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잇돌을 누가 놓았느냐
7. 그 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8.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9. 그 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10.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11.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해킹하는 중이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사는 게 아니라 해킹하는 중이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국이라고 말하기에는 규모가 작습니다만 방송을 위해서는 하나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물론 전문가에게 맡겨서 프로그램을 짜고 방송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구비하여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간 중간에 문제가 생길 때에 기술자가 원격제어라는 것을 이용하게 됩니다. 멀리 떨어져서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면 제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컴퓨터의 마우스 커서가 자동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타자를 치면 제 모니터에 표시되기도 합니다. 즉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통해 저의 컴퓨터의 관리자 권한이 그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제가 허락한 것입니다.

만약 원격제어 상태에서 급한 일이 생겨 자리를 비우게 되면 컴퓨터 파일 안에 은행 계좌번호, ID, 비밀번호, 여권번호, 생년월일, 대문 비밀번호 등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허락받지 못한 컴퓨터에 함부로 들어가서 관리자 권한으로 제멋대로 정보와 자료들을

훔치거나 망가뜨리는 것을 해킹(hacking)이라고 합니다.
은행 공항 국가공공기관 청와대 등이 해킹을 당해서 관리자 권한을 빼앗긴다면 커다란 위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은 핵무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해킹 기술도 있다고 합니다. IT기술을 통한 전쟁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와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정말로 그렇게 해킹을 당한다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전기도 다 끊기고 교통도 마비될 것입니다

도대체 이러한 해킹 이야기와 오늘 본문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본문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제까지 욥과 세 친구들과 엘리후가 변론을 벌인 현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에 대한 현현의 양상에 대한 묘사는 없습니다만, 우선 욥을 향하여 수많은 질문을 쏟아 부으십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내용이 좀 의아한 면이 있습니다.
4~7절까지는 물질세계를 창조하신 근원에 대해서, 8~11절까지는 바다의 기원에 대해서, 12~15절까지는 밤과 낮의 창조에 대해서, 16~21절까지는 시공간적 제한에 갇힌 인간의 존재성에 대해, 22~38절은 하늘의 신비에 대해서, 39~41절은 금수의 생태에 대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아느냐 누가 했느냐'라고 계속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 이 질문을 살펴보면 대답 못할 질문이 없을 것 같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안했으면 안했다고 하면 되고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마치 유치원생을 놓고 대학생이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으로 구성된 본문의 내용을 요약한다면 '내가 했고 나만 알고 내가 다스리고 있다. 너는 하지 않았고 너는 모르고 너는 다스릴 수 없다'라고 하시는데 왜 이런 우주 삼라만상을 거론하시며 질문하시는 것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주체적인 창조하심과 다스리심 안에 그물처럼 엮여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체성의 그물로 덮여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을 반어법적으로 해석해보자면 이렇게 하나님만이 주권자 되시고 관리자 되셔서 그물처럼 촘촘히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에서 인간에게만 주권자 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과 소원이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인간 스스로가 주체성을 억누르고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심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대해서 한 순간도 예외 없이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각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구속의 섭리와 계획을 말합니다. 내 삶의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생각이 없는 순간은 없습니다. 다 계획되어 있고 섭리하시려고 벼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주체성을 허락하셔서 나 스스로도 주체적인 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일 것인지 인간의 주권을 행사할 것인지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이며 살다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서 자신의 주체성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체성의 그물망에는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 바다 속의 물고기 한 마리와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들까지 모든 것들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삶에 대한 주체성을 드러내고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면서 이 그물망에는 구멍이 뚫리고 찢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도 보시기에 좋게 만드셨고 섭리하시기 위해 계획해 놓으셨는데, 내가 그 관리자 권한을 훔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만 인격적으로 대우하셔서 주체적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의 주체성과 나의 주체성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삶에 여러 문제들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고 해킹하는 삶입니다. 해커가 은행을 해킹해서 정보시스템을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관리자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나 스스로 관리자 권한을 발휘함으로서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신 시스템이 다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 아래에서 하나님께서는 욥과 친구들의 변론에 대해 평가하시고 깨닫게 하시게 위해 세상의 모든 것에 주체적으로 계획해 놓으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욥의 삶에 대한 관리자 권한이 하나님께 있으시다면 재앙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입도 뻥끗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체적인 활동에 의해서 주어지고 앞으로 이끌려져 나갈 것이고, 욥의 인생도 그렇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재앙이 주어지자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소리 저 소리로 항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나무라십니다.
우리의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어지럽히지만 않는다면 인생은 한 순간도 예외 없이 모두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여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삶을 해킹해서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고 하나님의 주체성으로 계획된 섭리의 그물망을 다 찢어놓고 망가뜨려놓고는 불행하다며 땅을 치며 원통해하면서 불평 불만합니다.
우리는 이 관리자 권한을 훔쳐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의 관리자 권한을 하나님께 위임한 채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그것이 불가능해지고 말았습니다. 마음은 공백을 채움으로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만족과 기쁨이 없다면 살 수 없습니다. 결국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은 나의 만족을 위해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버는 이유는 만족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여자와 결혼하려고 한다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은 ‘그러면 만족할까? 그러면 기

쁠까?'를 묻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찾으려고 할 때에 내 삶에 대한 관리자 권한을 훔치는 해킹이 일어날 뿐 이 지구 위의 삶에는 만족과 기쁨이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을 땅에서 찾으려고 하니 하나님의 주체성과는 근본적으로 결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주체성으로 이루어져있는 평강의 그물망은 다 찢어지고 맙니다.

이 땅에는 만족하거나 기뻐할 거리가 없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도 기쁨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를 만족거리로 믿으면 믿을수록 이혼할 확률도 높아질 뿐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만족거리는 오직 하늘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뿐이십니다. 가정도 배우자도 하늘 때문에 생긴 기쁨을 표현하는 계기와 무대가 되어야 합니다. 직장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통해서 만족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관리자 권한을 훔치게 됩니다. 한국은행에 침투한 해커가 전산시스템을 다 망가뜨리고, 국방부에 침투한 해커가 모든 체계를 망가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관리자 권한을 훔침으로 인해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진행되어야 할 하나님이 세우신 평강의 그물망은 다 찢기고 망가지게 됩니다. 나의 기쁨과 만족이 오직 하늘에 있다고 믿으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관리자가 될 필요도 없고 될 수도 없습니다.

혹자는 창세기 1장 28절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시지 않았느냐고 질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선악과와 같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장갑삼아 세상을 계속해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음으로서 내 삶에 대한 관리자 권한을 훔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몸을 장갑 삼으셔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내 삶은 질서정연하게 이끌려져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기쁨과 만족거리가 있다고 말하는 사탄의 말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지금도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회에 대한 하나님의 관리자 권한을 빼앗으려는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목회가 아닌 해킹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목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그물망은 다 찢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기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키움으로서 만족과 기쁨을 얻으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녀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해킹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해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질서정연한 진행과정들을 내가 관리자 권한을 가짐으로 다 깨뜨리는 것입니다. 사업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관리자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사업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관리자 권한을 훔쳐서 해킹을 하면 하나님께서 사업에 대해 갖고 계신 계획들을 찢고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고 계십니까? 해킹하고 계십니까?
사는 것은 곧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손이 들어오셔서 나를 장갑으로 끼실 때에 가능합니다. 해킹을 중단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이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는 마음이 죽고, 부활과 승천하신 주님을 향해 방향을 틀고 하늘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할 때에 이 세상에 대한 해킹은 중단 될 것입니다.
직장에 나가실 때에 해킹으로 시간을 때우지 마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사시도록 하십시오. 남편과 아내를 대할 때에도 부부의 삶이 해킹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배우자를 향해 말씀하시는 삶을 위해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를 생활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사실은 해킹이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십자가에 목숨을 걸어봅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이제까지 살아왔던 해킹방식의 삶이 중단되고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먹고 마시므로 하나님의 관리자 권한을 되찾으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